

‘공항 통합이전 당론 채택·3자 대화’ 성사 여부 주목

●광주시-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

姜시장 요청에 박찬대 원내대표 “대승적 합의 이끌 것” AI 2단계·문화도시 등 현안 국비 사업 18건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공공항 통합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국회의원 전원 지사·무안군수간 ‘3자 대화’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이전 당론 채택과 민주당 차원의 3자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한 데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23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날 필수민생 3대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물론,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관광이 성장해야 하고 물류와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

문공항으로 열려야 한다”며 “광주·전남 시·도지사, 무안군수,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중앙당이 지역 발전 정책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함께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강 시장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광주·전남·무안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항도시비전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비전토론회의 핵심은 국책사업 발굴”이라며 “민주당 중앙당에서 광주·전남이 제안할 국책사업에 함께 고민해 달라”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광주·전남이 큰 노력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 민주당 중앙당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 간



광주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2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대승적 합의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이날 현안사업과 국회 심의를 앞둔 2025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민주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예산과 관련,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3년 연속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의 노력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처럼 전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필수민생 3대 사업인

지역화폐,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지원 사업을 중앙당 차원에서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민주당에 주요 현안 7건과 국비지원 사업 11건 등 총 18건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은 민·군공항 통합이전, 5·1 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 협조, 인공지능전환(AI)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국비 지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 실현, 국가시설 지

방 분담 철화, 지방교부세 등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7건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체계 구축, 미래자동차 인지부품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 AI 영재고광주 설립,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메지던스) 건립,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광주·전주) 건설을 비롯해 11건 총 1천62억 원 규모의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당에서는 양부남 위원장과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이 함께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고광안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박성강기자

‘전남권 의대 선정 평가기준 공청회’ 연기

용역사 “대학 의견 수렴 필요”...추천 대학 선정 절차 지연 불가피

당초 오는 25~27일 열릴 예정이던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도민공청회가 연기됐다.

‘전남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A.T.Korea)·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설립 주체인 양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기준 설계 후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대학 의견 수렴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청회 일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용역사는 지난 10일 양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 대학 설명회에서 제기됐던 평가기준 설계 과정에서 대학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용역사는 목포대·순천대 양 대학과 국립의대 선정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일정을 협의 중이다.

용역사는 대학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립의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부터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전남권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으로 제시한 ▲1의과대학-2대학병원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사는 “추후 대학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도민공청회 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도민공청회 연기에 따라 당초 10월 말까지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결정하기로 한 로드맵도 1~2주 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역사는 평가기준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에 이어, 대학과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초까지 평가기준과 배점을 확정하고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와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양시원기자

▶1면 ‘통합공항’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장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담은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이나 실용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면서 10월 중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11월에 또 한번 중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전환

광주시, 이달부터 적용...5개 자치구 재정 분담

광주시는 23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계를 이달부터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호봉제 전환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되는 종사자들에게는 수당으

로 보전해주며 모든 종사자들에게 명절 휴가비를 별도 지급한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임금 체계는 근무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임금(고정급제) 체계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오랜 경력을 가진 종사자와 신규 종사자의 임금이 같아 형평성 문

제를 제기하며 근무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광주지역 아동센터는 299개소, 종사자 660명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운영 개소수가 가장 많아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호봉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로 급식 지원과 교육·놀이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7천200여명의 지역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박성강기자

광주시,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광주시는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후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

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공모해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을 시 상하고 전국에 공유하는 정책 경연대회다. 20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 육성, 지역청년 지원, 지방공공기관 혁신 등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 중 지역청년 지원 분야의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이 독창성, 지속 가능성, 전국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 청년 대상 부채 경감 지원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박성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유동 로타리 대로변 코너 최고요지 상업지228㎡
급매10억3,000 (면적 추가가능)

광주역 6차선 대로변 상업지 대지479㎡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주차6대 급매 14억9,000(커피카페,음식점,전시장등 뒤편 최적)

광주역 코앞 상업지 대지534㎡ 6층1,145㎡ 승강기1 주차16 스프링클러, 병원기준완비, 의료장비도 비치, 병상7개 급매 26억8,000(조정가/임대도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료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